

【 해외금융 뉴스: 북미 】

미 상원, 운전 중 문자메세지 사용금지 법안 제출

□ 미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모든 주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함.

- 동 법안은 각 주정부가 운전 중 문자메세지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간 연방고속도로 보조금(Federal Highway Funds)의 25%를 삭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.
- 한편, 미국 내 14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는 이미 운전 중 문자메세지 전송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함.
- 운전자의 집중력 감소를 막아 교통사고를 줄일 목적으로 제안된 동 법안은 운전자 가 휴대용 전자기기 조작으로 도로를 주시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결과에 기반함.

□ 버지니아 공대 교통연구소(Virginia Tech Transportation Institute)는 경차와 트럭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트럭을 운전하는 운전자가 운전 중 문자메세지를 사용하는 경우 충돌사고확률이 23배 높아진다는 결과를 발표함.

- 연구소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거나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충돌사고 확률은 6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, 문자메세지 사용이 충돌사고의 위험성을 더 증가시킨다고 지적하고, 이러한 위험은 트럭운전자뿐 아니라 모든 운전자에 적용될 수 있다고 밝힘.
- 연구결과 충돌직전 운전자는 약 5초간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, 휴대전화 통화의 경우 도로상황을 계속 주시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운전자의 시선을 도로에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로 안전에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주장함.

(Insurance Journal , 7/29,30)